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제621호

지면안내 03 사회 재주는 연구자가 부리고 돈은 학술DB가 번다 04 사진기획 재개발이 삼킨 시간의 조각들 05 사람사 뺑뺑! 뺑뺑! 지나갑니다 08 광고 제20회 사진공모전 현상공모

교내서 미허가 단체 활개, 금전 요구·사칭 논란 일어

본부,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강력 조치 예정

지난 3월 한 달간 교내에서 미허가 단체가 목격됐다. 미허가 단체들은 교내에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판매 및 모금 활동을 벌였다. 대학본부는 이와 관련해 '외부인 교내 무단출입 및 사칭 관련 주의 안내'를 게재했으며, 추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미허가 단체는 '인도 아시아 자원 봉사 서비스 센터(AVSC-INDIA)'와 '한솔에듀테크'로 확인됐다. 인도 아시아 자원 봉사 서비스 센터는 지나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도 지역 수해와 지진 등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을 강요했다.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지수(IT 3) 학생은 "연구관에서 공학관으로 이동하던 중 외국인 무리가 접근해 수재민을 위한 모금에 대해 설명했다"며 "교내 구석진 곳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단체에 대한 설명과 홈페이지 유무 등을 질문했으나 답하지 않고 모금만을 중용했다"고 말했다. 서아연(인문 2) 학생은 "단

체 측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게 한 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했다"며 "어렸어서 앞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으니 모금하지 않으면 쉽게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분위기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금시조문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와 학교 간 협력·연계 활동이 진행된 사실은 없으며, 해당 단체가 공식적으로 교내 모금 활동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중집(학생복지팀) 팀장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365자원봉사포털, NGO Darpan 등 봉사 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한솔에듀테크도 학생들에게 상품 구매를 중용한 정황이 나타났다. 해당 단체는 강의실로 들어가 총학생회를 사칭해 교내 교육장학금 지급 관련 공지사항이 있다고 안내한 뒤, 학생들을 다른 강의실로 이동시켰다. 이후 한솔에듀테크가 본교와 제휴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토의 강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를 진행한 학생이 뒤늦게 사칭 사실을 알고 결제를 취소하려 하자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조 팀장은 "단체가 본교의 장학금을 거론하다 보니 학생들이 실제 결제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측은 해당 단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에서 한솔에듀테크와 별도의 제휴·연계 등을 맺은 사항은 없으며 제휴를 맺은 업체는 모두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총학생회는 강의실을 돌려 장학금을 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윤



사진: 황수민 기자

▲기자가 미허가 단체(우)와 접촉했다.

지(문과 4) 총학생회장은 "상술한 단체가 총학생회를 사칭해 강의실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대학본부로부터 전달 받았다"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즉시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인스타그램과 에브리타임 등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역시 판매 활동에 대해 사전에 허가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가 주장하는 협력·연계활동은 일절 없었으며 교내 판매 행위에 대한 허가조차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김지호(총무인사팀) 부팀장은 "미승인 외부인의 상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결제를 요구할 경우 해당 단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사진: 김혜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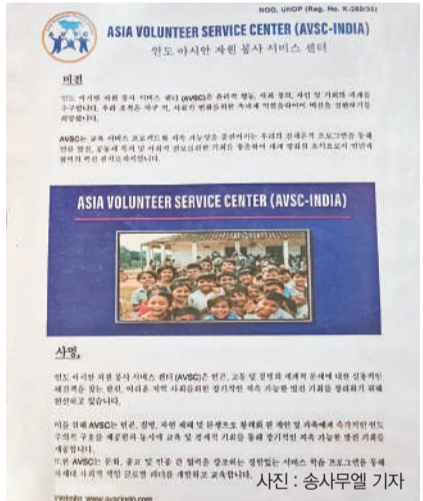
▲지난 26일 상상관 인근에서 미허가 단체가 학생들을 둘러싸고 모금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자 시정조치 요구, 소비자 상담센터 연계 등의 과정을 거쳤다. 조 팀장은 "단체 측에 연락해 법적인 대응 경고와 학생의 결제 취소를 요구했고 현재는 신고한 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솔에듀테크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칭의 경우 외부 활동을 담당하는 외주 업체가 진행한 것이며 해당 직원은 퇴사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제 취소 희망 학생을 협박했다는 논란도 당사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박익선(한솔에듀테크 CS팀) 팀장은 "결제 취소 처리가 안 된 학생이 있다면 CS팀 측으로 연락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학 내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한성대학교 학칙』에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교내 진입과 활동에 대한 규제나 조항이 없다. 이에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 학생은 "학교 차원의 안내를 통해 유사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재학생들에게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며 "이후에도 미신고 및 미허가 교내 활동은 바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송사뮤엘 기자 songsamuel24@naver.com
황수민 기자 hsu.min260@gmail.com



▲미허가 단체의 안내책자

2026 재선거 마무리

'2026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이하 재선거)'가 지난 1·2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재선거는 '2026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던 IT공과대학의 학생회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의 각 트랙·학과(부) 등

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글로벌인재대학과 미래플러스대학을 포함한 22개 단위 학생회는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

제28대 IT공과대학 학생회 선거 결과 '정점' 선거운동본부의 김동현(기계전자 3) 정 학생회장 후보와 이준호(컴공 4) 부학생회

장 후보가 찬성 960표(85.26%), 반대 141표(12.52%)로 당선됐다. 투표에는 재적인원 1,975명 중 1,126명(57.01%)이 참여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학기 학생회가 공식적이었던 단과대학은 IT공과대학이 유일했다"며 "학생회의 공식으로 인한 학우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진일보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에서는 ▲영미문화콘텐츠트랙 ▲한국어교육트랙 ▲지식정보문화트랙의 트랙학생회장이 당선됐으며,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서는 ▲국제무역트랙 ▲글로벌비즈니스트랙 ▲기업·경제분석트랙 ▲경제금융투자트랙 ▲부동산트랙의 트랙학생회장 선출이 이뤄졌다. 창의융합대학에서는 융합보안학과와 미래모빌리티학과와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선출됐다.

김현진(문과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재선거에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단위의 경우, 한 해 동안 공식인 상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향후 요구에 따라 단위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선거유세를 진행하는 IT공과대학 '정점' 선본



본교 구내서점 영업 종료 지난 30일 본교 구내서점이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우촌관 1층 중문에 위치한 구내서점은 1986년부터 약 40년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 본교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영업을 종료했다. 구내서점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폐업 수순을 밟는다. 구내서점을 운영해 온 정재일(70) 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기점으로 매출이 감소해 폐업을 결정했다"며 "그간 서점을 찾아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대학본부는 폐업 후 교재와 문구류 보급, 공실 활용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예정이다. 최민이(총무인사팀) 팀장은 "3월 30일 자로 영업을 종료된 것 외에는 확정된 사안이 없다"며 "폐업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캠퍼스에 펼쳐진 동심, 만우절 행사 성료

만우절 행사가 교내 잔디광장에서 지난 4월 1일 진행됐다. ▲총학생회 '온(ON:穩)'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인화'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도성' ▲디자인대학 학생회 '라이트'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사계' ▲기계전자공학부 학생회 '여백' 등이 부스를 운영했다.

온(ON:穩)은 공룡 사냥을 주제로 3가지 미니게임을 진행했다. 공룡 사진 보고 이름 맞추기 게임, 공룡 동지에 탁구공 넣기 게임, 공룡 퍼즐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준비된 게임을 모두 통과하는 참가자는 간식 등이 포함된 경품 추첨권을 받았다. 또한 부스 참가자 전원에게 공룡에이드와 초콜릿 등 간식이 제공됐다. 정윤지(문콘 4) 총학생회장은 "운영진이 주제와 맞게 공룡 의상을 입고 잔디광장을 돌아다니기도 했다"며 "학우들의 부스 접근성과 참여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인화는 놀이공원 테마의 3가지 게임을 준비했다. 각 게임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기



▲공룡 의상을 착용한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다.

록 상위 3명에게 상품을 제공했다. 게임은 애니메이션과 영화 속 캐릭터 맞추기, 병뚜껑을 날려 높은 배점의 원 안에 넣기, 코끼리코를 들고 점수가 적힌 돌림판을 펜으로 찍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등 '롯데

월드 종합이용권' ▲2등 '코닥 일회용 플래시 카메라 렌세이버 27' ▲3등 '비비큐 황금 올리브+1.25L 세트'가 증정됐다. 하현구(무용 3)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은 "학교라는 공간을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해 학생회의 이름처럼 놀이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인화하는 분위기의 부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성은 '왕과 사는 도성' 부스를 기획해 투호, 역사 인물 퀴즈 등을 진행했다. 투호와 역사 인물 퀴즈에서 각각 높은 기록을 세운 학생 1등과 2등에게 ▲1등 '교촌 허니콤보 세트' ▲2등 '이마트24 1만 원 상품권'이 지급됐다. 남도경(사회과학 4)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학생회 이름이 한양도성을 연상시키는 만큼 전통적인 분위기와 게임 요소를 적절히 반영해 부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는 '다대요리사'를 주제로 게임을



▲'사계' 부스에서 학생이 인물 퀴즈를 맞힌다.

진행했다. 참여 학생 중 게임 성공 시 지급되는 별 5개를 모은 학생에게 경품 추첨권을 증정했다. 게임은 안내 착용 후 상자 안의 물건을 맞추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제한 시간 내에 제시된 사진의 요소와 일치하는 카드를 바구니에 담아오는 '스피드 재료의 방 미션' 등이 진행됐다. 경품은 '코닥 필름 카메라 Ultra F9 다크그린(1명)'과 '이마트24 1만 원권(4명)'이 증정됐다. 최혜린(패션 3)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매년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명확한 콘셉트를 갖고 부스를 운영했다"며 "행사 기간 내내 학우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계는 고등학교 콘셉트로 부스를 운영하며 교과목 관련 퀴즈를 마련했다. 국어 과목은 틀린 맞춤법을 맞추는 퀴즈가 진행됐으며, 미술 과목은 명화 퍼즐을 맞추는 등의 방식이다. 부스 내에서 핫도그를 판매하기도 했다. 유선우(문콘 4) 창의융합대학 학생

회장은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콘셉트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만우절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기획했다"며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람찼다"고 전했다.

여백은 새로운 만남과 인연을 주제로 연인 테마의 부스를 구성했다. 사탕을 매개로 인연을 이어주는 '사탕 소개팅'과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해주는 '폴라로이드 사진찍기'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 운영됐다. 심규승(기계전자 3) 기계전자공학부트랙 학생회장은 "날씨가 좋아 의도했던 설렘이 현장에서 잘 드러났다"고 답했다.

만우절 행사에 참여한 이유민(상상력 1) 학생은 "만우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주제로 부스가 운영돼 기억에 남는다"며 "봄날에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돼 좋았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 24kbird@naver.com



▲'인화' 부스에서 학생이 코끼리코를 들고 있다.

일상과 독서가 만난 성북구 야외도서관 개장

'2026 성북구 야외도서관 책임은 성북(이하 야외도서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성북길빛도서관과 길빛근린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1차 운영에 이어 2차로 마련됐다.

야외도서관은 주민의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 속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성북구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재단이 주관했다. 운영 시간은 17·18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1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행사에는 ▲책명존 ▲야외도서관 사서 큐레이션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이 운영된다. 책명존은 스탠딩 책상과 빈백 등을 갖춘 휴식형 공간으로, 현장에 비치된 약 3,000권의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야외도서관 큐레이션 프로그램은 최신 마을 정보와 도서 전시와 사서들이 2014년부터 축적해 온 추천 기록을 바탕으로 선별·재구성한 도서 서재 형태로 구성된다. 더불어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케스트라, 재즈, 코미디쇼 등 시간대별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하은(성북문화재단 성북길빛도서관) 사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와 공간을 마련했으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준 기자 1030jay@naver.com



▲지난해 하반기 열린 야외도서관에서 독서와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



학교 인근 낙산성곽길 새단장된다 본교 인근 낙산성곽길이 오는 30일 새롭게 단장된다.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하 사업)'은 낙산노인회부터 행운빌리까지 이어지는 약 500m 구간이 대상이다. 사업은 지난해 11월 3일 착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도와 도로가 정비되고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차량 인도 진입 구간은 단차가 조정되며 도로 재포장과 울타리 교체도 이뤄진다. 편의시설은 LED 교통안내표지판과 그늘막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박찬일(중로구청 도로과) 주무관은 "새롭게 단장한 낙산성곽길이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심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 기자 soohyuniog@gmail.com

한성인 글쓰기 대회 참가자 모집

제21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이하 글쓰기 대회) 참가자를 오는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글쓰기 대회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등을 위해 매년 상상력교양 대학에서 실시하는 행사다. 본교의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원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스마트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자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

글쓰기 대회는 5월 11일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2개의 주제 중에서 1개를 택해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주어진 100분 안에 1,000자 이상, 2,000자 이내 분량의 글을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표현력 ▲이해력 ▲논리력 ▲비판력 ▲구성력 등이 제시됐다.

시상은 ▲최우수상(1명) ▲우수상(4명)

▲장려상(4명)으로 구성되며, 상금은 각각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5월 29일 본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참가 혜택으로는 모든 참가자에게 비교과 포인트 25pt가 지급되며, 대회 장소에 입장할 경우 추첨권을 배부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마트24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서윤(사고와표현과정) 조교는 "사회적 현안이나 대학 내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가 구성될 예정"이라며 "AI를 이용해 손쉽게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에 학생들이 직접 글을 작성하며 사고력을 확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수민 기자 hsu.min260@gmail.com

경제·취업 연계한 마스터 클래스 열려

'내일을 여는 상상 Insight 「마스터 클래스」(이하 마스터 클래스)'가 지난 3월 25일과 4월 2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학생진로취업처 총학생회가 주최한 마스터 클래스는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해 기획됐다. 특강은 총 2회 진행됐으며,

1회차 특강은 '2026년 한국경제의 거시

적 전망과 경제/금융 리스크'를 주제로 이뤄졌다. 이재원 경제연구원장은 사회 문제를 경제와 연결해 해결책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2회차 특강은 'CEO가 원하는 인재상(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이 주제였다. 권영수 전 부회장은 경력과 제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재학생은 비교과 포인트 10pt와 회차별 상품을 지급받았다. 1회차는 사전 질문자 5명과 현장 질문자 10명에게 데비코 커피 쿠폰이 제공됐으며, 2회차는 선착순 60명에게 권영수 전 부회장의 저서가 배부됐다.

1회차 특강에 참여한 김다은(사회과학 3) 학생은 "특강을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가는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이재원 경제연구원장이 1차 마스터 클래스에서 한국의 거시경제 전망을 강연한다.

사진: 김산 기자

재주는 연구자가 부리고 돈은 학술DB가 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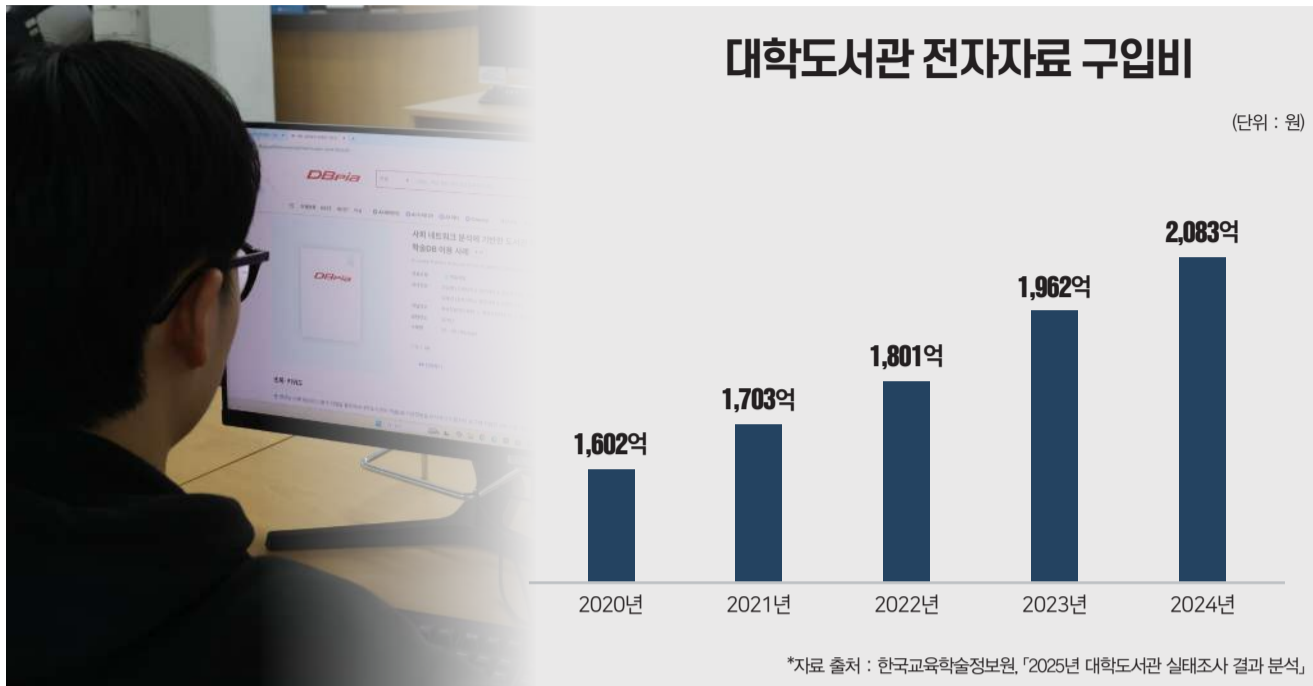
지식의 생산과 공유는 학문의 핵심 가치다. 그중 '학술 데이터베이스(이하 학술DB)'는 연구 성과를 보존하고 유통하는 등 학술 연구 환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학술DB 중심의 독점적 유통 구조가 형성되면서 연구자와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술DB는 학술지와 학위논문 등이 저장된 데이터 저장 공간이다. 학술DB는 크게 공공 학술DB와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민간 학술DB로 구분된다. 'KCI', 'RISS' 등의 공공 학술DB는 논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만큼 공공성과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DBpia', 'KISS'로 대표되는 민간 학술DB는 학회와의 계약을 통해 원문을 수집·유통하며, 사용자는 논문 열람을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민간 학술DB는 논문 유통 구조 과정의 핵심 주체다. 연구자가 논문 게재를 위해 학회에 심사료와 게재료 등을 지불하면 학회는 논문 심사 후 연구자의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 등에 최종 게재한다. 이후 학회와 민간 학술DB 간 계약을 통해 논문은 해당 DB에 게시된다. 오선혜(경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민간 학술DB는 구독기관으로부터 받은 구독료의 일부를 계약 조건에 따라 저작권료로 배분하고, 학회는 이 수익으로 학회 운영 비용을 충당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문 유통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첩되는 구독료가 대학에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논문이 여러 학술DB로 분산해 등재되니 대학 등 기관이 여러 학술DB를 한 번에 구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대학라이선스 학술DB 구독지원' 등을 통해 대학의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중첩돼 대학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5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국 대학도서관 전체 자료 구입비 대비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은 2021년 70.3%에서 2025년 77.5%까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술DB를 구독 중인 고려대학교는 186개에 달하는 학술DB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상승하는 구독료로 인해 대학이 구독을 해지하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학 간의 정



보 격차가 발생한다. 실제로 구독 종수 상위 20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지식 접근권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오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정보 격차는 이제 단순히 우려를 넘어 심각한 현실이 됐다"며 "학교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빠듯한 비수도권 대학들이 매년 수익 원씩 오르는 구독료를 감당하지 못해 정보 접근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의 저작권이 민간 학술DB에 넘어가 이들이 모든 저작권을 독점하는 주권전도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원저자인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논문 유통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지적이다. 이지연(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연구자는 비용을 내고 지식을 생산하지만 상업적 이익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현재 학술 출판 생태계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연구 성과가 지식 거래 사이트에서 활발히 유통되면서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학술DB는 수익을 위해 논문 사용권을 '해피캡 퍼스' 등 지식 거래 사이트에 재판매한다. 그러나 벌어지는 무단 2차 유통을 막지 못해 연구자의 학술 자산이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계승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가공 및 배포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

며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역설했다.

학회와 민간 학술DB 간의 계약 구조가 구독료 중첩의 원인으로 제기된다. 민간 학술DB는 특정 논문을 자사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배타적 공급 조항'을 학회와의 계약 조항에 포함시킨다. 대학이 분산된 논문을 열람하기 위해 각 학술DB를 모두 구독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학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비효율적인 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오 교수는 "한정된 도서관 자료 구입비 중 학술DB 구독료가 최우선으로 집행되면서 단행본 구입은 뒷전으로 밀리는 기형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 제공 양극화의 원인으로 민간 학술DB의 독점 시장 구조가 꼽힌다. 민간 학술DB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민간 학술DB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주도하게 된다는 의미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비수도권 대학 입장에서 이는 예산 압박으로 다가온다. 김은기(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특정 학술DB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가격 결정 구조가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된다"며 "이러한 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학의 재정 여건에 따른 정보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이 민간 학술DB에 종속되는 문제는 연구 실적이 절실한 연구자에게 저작권 양도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구조가 원인

으로 꼽힌다. 논문 게재를 위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다. 게재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학회의 규정 탓에 연구자는 권리가 박탈되는 모순을 인지해도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정경희(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는 "90년대 중반 학술DB가 등장하며 유통 권한 확보를 위해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학회는 이를 관행적으로 수용하며 연구자에게 저작권 양도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문의 상품화는 지식 거래 사이트에서의 재가공을 정부와 민간 학술DB가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민간 학술DB의 값비싼 유료 가격으로 인해 저렴한 자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상 재가공에 대한 명시적 충분하지 않거나 법이 있어도 집행이 느슨한 실정이다. 이지연 교수는 "민간 학술DB가 지식의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부여와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독점적 유통 구조에 따른 대학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공동 구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라이선스 지원을 확대해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논문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국가 차원의 공동 구독 모델은 대학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 학술DB 간 역할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민간 학술DB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공 학술DB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KCI, RISS 등 기존 공공 학술DB의 정보 구축 정도와 UI 편의성 등을 민간 학술DB 수준으로 상향시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향후 공공 학술DB와 민간 학술DB 간의 역할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논문 유통 생태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공적 기금을 통해 학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단순한 재정 보조를 넘어 학회가 논문을 독립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다. 정 교수는 "공적 기금 지원을 통해 연구자, 학회가 논문을 심사, 게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 재가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통 구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민간 학술DB에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민간 학술DB 업체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지식 거래 사이트를 넘어 이뤄지는 2차 유통을 상시 단속하는 방식이다. 또한 논문 파일에 이용자 식별 정보를 담은 '디지털 워터마크' 등을 삽입해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지연 교수는 "논문 이용 시 저작권자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학술 유통 구조는 지식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통 과정에서 정부의 법적 가이드라인, 대학의 적극적인 연구 환경 인프라 지원, 학술DB의 책임성 제고 등 3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고질적으로 자리잡은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학술 지식이 사회적 공유 상태가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인프라를 갖추는 국가적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김기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임기자의 외교 노트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세계가 저물다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 종말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 '팍스(Pax)'에서 비롯된 말로,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유지되는 세계 평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며, 각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움직임을 넓히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아래 미국은 약 60년 전부터 세계 곳곳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국제 질서를 유지해 왔다. 크게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를 중심으로 군사 긴장을 관리했고, 중동에는 직접적인 개입과 압박을 통해 충돌 확산을 억제했다. 동시에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 작은 국가와 도시까지도 미국의 '힘'이 미치고 있다. 이들의 현지 정치 결정과 경제 흐름도 미국의 외교나 금융 정책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 강선주(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원) 교수는 "작은 국가에서도 미국의 정책과 결정이 현지의 정치·경제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힘을 갖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기조가 팍스 아메리카나에 균열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최근 미국은 NA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기존에는 상호 안보 책임을 강조하며 협의 중심으로 유지되던 미국의 외교 관행을 뒤집은 셈이다. 이로 인해 동맹국은 방위 의무와 협력 범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 이정남(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공습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전쟁 종료를 암시했다가 다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여러 국가의 탈탈러 움직임이 한층 더 눈에 띄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반서방 성격을 띠는 브릭스(BRICS) 국가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IMF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달러 비중은 2015년 약 66%를 기록했던 반면, 올해 2분기에는 약 56%로 낮아졌다.

이정남 교수는 "달러 중심 질서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만 탈탈러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에서도 분열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이 군사 지원 등을 요구하면 동맹국들이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중동 사태 이후 동맹국들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기존 미국 중심 동맹 체계에 분열이 일고 있다. 미국이 군사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은 직접적인 군사 참여는 선을 긋거나 후방 지원에 그치는 태도를 유지했다. 동맹이라 한들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이다. 신성호(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보나 외교 현안에서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주도하에 미국 역대 최대 규모로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불확실한 외교·안보

정책이 국내 정치 분열로 번진 결과다. 시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왕에 비유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미국 전역 3,30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최소 8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 교수는 "노 킹스 시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폭력 시위"라고 말했다.

미국의 책임 회피와 이익 독식에 동맹국의 신뢰에는 금이 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시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승자'로서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분쟁 관리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강 교수는 "미국의 책임 회피는 그간 미국이 주도해 온 질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균열은 세계 경제와 안보 전반에 연쇄적인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각국의 물가와 무역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제 공급망 역시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동시에 군사 충돌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각국은 방위비를 늘리고 에너지 확보 경쟁에 나서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러한 국제 유가를 자극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서방의 군사 행동을 제약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신뢰 약화 속에서 한국도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건이 불투명하고 변수도 많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자국 선박의 안전과 에너지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이정남 교수는 "한국은 사안별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규제가 완화되기 전 2016년도 동소문동2가 한옥밀집구역의 전경



▲현재 동소문동2가 한옥밀집구역 내 한옥 일부가 철거되고 있다.



▲2019년 채동선 옛집 철거 직후



▲2019년 채동선 옛집이 철거되고 있다.

재개발이 삼킨 시간의 조각들

본교 일대를 비롯한 성북구 곳곳에서 재개발이 한창이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수록 과거의 흔적은 더욱 쉽게 사라진다. 무심히 허물어지는 건물들 사이, 지역의 시간과 기억을 품어온 사적(史跡) 또한 포함돼 있다. 그 공간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도 함께 지워지고 있다. 재개발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는 역사·문화적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까. 그 물음에 답기 위해 성북구 사적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 변화의 흐름을 짚어봤다.

학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한옥을 볼 수 있다. 동소문동의 '동소문동2가 한옥밀집지역'이다. 2009년대에 형성된 도시형 한옥이 모여 만들어졌다. 관광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개발을 위해 2022년 역사문화지구 일대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옥이 철거되며 전통적인 경관은 점차 지워지고 있다.

〈고향〉, 〈향수〉와 같은 노래가 탄생한 공간인 '채동선 가옥 터'도 마찬가지다. 채동선 가옥은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로 활동했던 채동선의 생가다. 민족성과 애국성을 지닌 음악이 탄생하며 근현대사 항일과 연결된 공간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주택 신축을 위해 철거되며 그 안에 담긴 시대의 이야기도 사라졌다.

한 번쯤 〈성북동 비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테다. 시인 김광섭의 대표작으로 여겨지는 해당 작품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공간을 주제로 한 시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김광섭 시인 집터' 역시 주택처럼 1998년 빌라 건축을 위해 철거됐다. 현재는 다세대 주택이 세워져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채동선 옛집 철거 이후 해당 부지에 신축된 빌라



▲성북로10길 30에 있던 김광섭 시인의 옛 가옥



▲현재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는 김광섭 집터

빵빵! 빵택시 지나갑니다

빵택시 안성우 기사

〈편집자주〉

운행 한 달 만에 1년 치 예약 마감. 이 뜨거운 인기의 주인공은 바로 '빵택시'다. 빵택시는 '빵의 도시'라 불리는 대전 지역의 빵 맛집을 따라 도시를 누비는 이색 택시 투어다. 빵택시 투어 과정에 참여한 승객은 차량 안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이동 중에도 빵을 맛보며 대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안성우(63) 기사는 빵처럼 따뜻한 미소와 푸근한 인상으로 승객을 맞이한다. 그의 안내를 따라 차에 오르면 단순한 이동이 아닌 하나의 '여행'이 시작된다. 코스는 대전의 개성을 담은 빵집들로 구성된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편하게 빵을 즐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돼 있다.

과연 빵택시는 어떻게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까. 그리고 이 작은 택시 안에서 어떤 경험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기자가 직접 대전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Q. 빵택시를 운행하기 전 여행이나 여행 기획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가.

여행사에서 20년간 근무했었다. 40대에 여행 코스와 일정 등을 담은 부부 여행 후기를 기록 삼아 여행사 게시판에 올린 것이 이용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다. 후기에는 구체적인 여행 코스와 세부 일정 등을 담았고 이를 본 이용자들이 해당 코스를 따라 여행할 정도로 큰 반응을 얻었다. 이후 해당 여행사의 제안을 받아 여행 기획자로 근무했다. 여행지에서 다양한 사람과 다채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꼈다.

Q. 빵택시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일본의 '우동택시'를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여행 기획자로 활동할 당시 일본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우동택시를 체험했다. 기사가 고객에게 각 지역의 우동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승객이 먹어보고 싶어 하는 우동집에 데려다 주는 방식이었다. 이때 택시 기사가 지역 곳곳의 맛집을 발굴해 내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여행 업계에서 퇴직하며 한국에서도 시민과 승객들이 음식과 이동을 결합한 새로운 투어를 누렸으면 했다. 특히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빵의 도시'인 대전만의 매력을 담백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Q. 빵택시는 운행 재개 한 달 만에 올해 예약이 꽉 찰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빵택시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승객과의 소통이 빵택시가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동 시간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이야기로 채워가기 때문이다. 대전을 찾는 많은 이들이 빵집을 찾지만, 빵택시는 그 과정에서 승객의 반응을 살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경험을 함께 만들어간다. 각 제과점의 특징이나 가게에 얽힌 뒷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빵은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닌 기억으로 남는다. 현장에서 오가는 작은 대화와 반응들이 쌓이며 경험의 밀도를 높이고, 그 시간이 오래 기억에 머무는 점이 빵택시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Q. 빵택시 운영을 위해 맛집을 찾고 운행 경로를 구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빵택시의 기획 과정이 궁금하다.

대전의 진정한 특색을 담기 위해 3년간 대전 시내 곳곳을 발로 뛰었다. 직접 택시를 운행하며 대전의 지리를 익혀나갔고 투어

과정에서 승객이 느낄 불편과 기대를 함께 헤아렸다. 빵집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맛과 구성, 대기 시간, 접근성까지 꼼꼼히 살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성껏 빵을 만드는 가게들을 발굴해 여행 경로에 담고자 했다. 여러 매장을 무리 없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동선을 가깝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기다림을 줄이는 데에도 신경썼다. 빵의 맛이 변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제과점 사장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쌓기도 했다. 모든 승객에게 좋은 빵을 소개하면서 편안하고 따뜻한 여행 코스를 만들기 위함이다.

Q. 빵택시를 운행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불편과 위험까지 미리 덜어내 승객이 온전히 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신경을 쓴다. 이동 중에도 시식이 가능하도록 기차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차량에 설치하고 후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나이프는 끝이 둥근 제품으로 준비해 작은



▲빵 소품으로 꾸민 빵택시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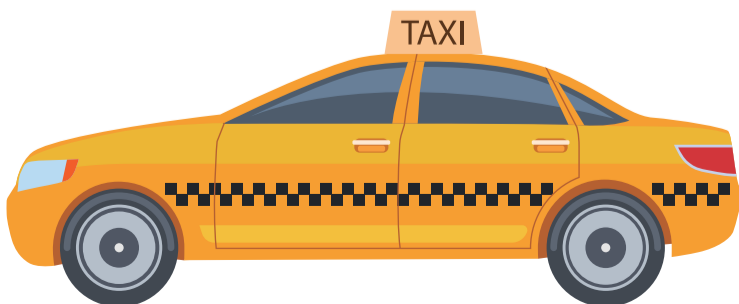


사진: 김산 기자



▲안성우 기사가 본지와 인터뷰 중이다.

위험까지 줄였다. 접시 역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제품을 고르기도 했다. 버터와 오일도 직접 맛을 비교해 바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뒀다. 이렇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고민한 덕분에 승객들이 걱정 없이 빵의 맛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상술한 내용 외에도 빵택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한 바가 있는가.

빵택시에 탑승한 승객 개개인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운행 중에도 승객의 선택과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전체적인 맛의 흐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여행 경로를 다듬는다. 승객들 사이에서 화제를 이끈 '빵명록'도 승객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사례다. 빵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이 방명록에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승객의 경험이 여행 기획에 더해지며 빵택시가 발전함과 동시에 더욱 따뜻한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 같다.

Q. 빵택시 운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이를 해결한 방법은.

기존 관광택시는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빵택시는 특정 목적으로 이동하며 맛집 체험과 이야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투어 서비스였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전시가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동안 3개월 간 무상 운행하며 영입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무엇보다 빵을 좋아하고 빵택시를 응원해 주는 시민들의 반응이 큰 동력이 됐다. 덕분에 지난 3월,

빵택시는 정식 운행 승인을 받았고 대전시로부터 택시 지원까지 받아 지역 특화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Q. 앞으로의 목표나 빵택시 서비스 확장 계획이 있는가.

빵택시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확장된 형태의 '빵버스'와 디지털 메뉴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빵버스의 경우 빵택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차량 규모나 동선, 운영 방식 등을 세심하게 다듬고 있다. 7월 중으로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빵 메뉴판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종이 메뉴판을 한 단계 발전시켜 올 하반기에는 빵의 생김새나 질감을 생생히 전달하는 가이드북 형태로 선보일 계획이다.

Q. 청년에게 경쟁력 있는 기획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자면?

관찰력이 기획의 출발점이 된다. 거창한 아이디어보다,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요소에 한 번 더 눈을 기울여 보는 것을 권한다. 빵택시 역시 대전의 매력과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정답을 찾기보다 직접 시도하고 조언받아 방향을 다듬는 과정이 오히려 더욱 다채로운 기획으로 발전했다고 여긴다. 작은 요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연결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하나의 기획이라 생각한다.



사진: 김혜운 기자

태그리스, 신호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문

지하철과 버스를 놓칠까 허둥지둥 카드를 꺼내 찍는 시대는 끝났다. 서울교통공사는 2027년까지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역사에 '태그리스(Tagless)'를 도입할 예정이다. 태그리스는 버스, 지하철 이용 시 카드나 스마트폰을 별도로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변화는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태그리스는 사용자가 별도의 물리적 접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스마트폰이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가까이 접촉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용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채 개찰구를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태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수많은 이용객들 사이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람을 찾아내 결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비콘(Beacon)'이 주로 사용된다. 비콘은 무선통신기기로 역사 천장, 게이트 안팎 등 여러 장소에 설치돼 사용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신호로는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비콘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비교해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약 10m 정도의 송신범위를 가진 일반 블루

투스과 달리 비콘은 최대 50m까지 달하는 범위로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소재현(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비콘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경로를 따라 배치돼 블루투스 신호를 송출한다"고 말했다.

비콘의 위치추적은 'BLE(Bluetooth Low Energy)'를 통해 가능하다. BLE는 기존 블루투스보다 전력 소모가 적은 저전력 블루투스다. 고유한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한 신호를 비콘과 스마트폰이 주고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때문에 일반 블루투스가 기기 간 연결을 위해 상시 통신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BLE는 약 0.1초에서 0.3초 간격으로 끊어서 신호를 송출한다. 이로 인해 별도의 연결 과정이 필요 없어 비콘, 스마트폰 등이 빠르게 다중연결할 수 있다. 김기형(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무선 이어폰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블루투스는 계속 연결돼 있어야 하지만 비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콘과 스마트폰은 주고받은 신호를 바탕으로 비콘과 비콘, 비콘과 사용자 간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가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RSSI는 수신된 무선 신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비콘과 사용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가

까워지면 강해진다. 신호가 약해질수록 음수로 수렴하며, 강해지면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사전에 측정된 비콘 고유의 전파세기와 비교해 사용자와 비콘 간의 거리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RSSI의 거리측정은 '삼변측량법'을 통해 더욱 정확해진다. 삼변측량법은 세 원의 교점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측량 방식이다. 먼저 역사에 설치된 각 비콘들이 비콘을 중심으로 원을 그린다고 가정해 보자. 비콘이 보내는 신호는 원의 형태로 퍼진다. 이때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근처에 있는 비콘들의 원과 교점을 공유하게 된다. 역사에 설치된 다수의 비콘이 이를 토대로 원을 그리면 같은 지점을 공유하는 수많은 원이 만들어진다. 각각의 위치값을 갖고 여러 비콘에서 얻은 거리 정보가 결합할수록 그 위치는 더욱 명확해지며 결과적으로 위치 추정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소 교수는 "이론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3개만 놓지 않고 사람들이 입장하는 게이트의 넓이만큼 설치된다"고 덧붙였다.

삼변측량법으로 사용자가 위치한 좌표값을 도출해 내면 더욱 정밀해지도록 '최소제곱법'도 적용된다. 실제 환경에서는 간섭 등으로 인해 비콘별로 측정된 사용자 위치가 다른 오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소

제곱법은 관측값과 추정값 사이의 오차를 제곱해 합한 값이다. 먼저 최소제곱법은 삼변측량법에 사용되는 각 비콘을 중심으로 한 원들의 반지름 값을 오차로 정의한다. 이후 이 오차를 제곱해 모두 더한 값이 가장 작아지도록 만든다. 오차를 그대로 더하면 양수와 음수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곱을 사용한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실제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각 측정값이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술한 과정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추출했다면, 이제 결제 과정이 뒤따른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카드를 등록하면 '토큰화(Tokenization)'가 이뤄진다. 토큰화는 사용자의 카드번호를 암호화한 값인 토큰으로 대체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때문에 해당 암호에 접근 권한이 있는 기기만이 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역사로 진입하면 비콘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인식해 태그리스 승강장과 사용자, 단말기의 비콘 신호를 주고받아 위치를 인식한다. 승·하차를 위해 단말기에 사용자가 진입할 경우 단말기가 스마트폰에 결제신호를 전송한다. 결제신호를 받은 스마트폰은 카드사로 토큰 정보를 포함한 결제 승인 요청을 전송해 카드사의 승인이 완료되면

요금이 자동정산된다.

다만 태그리스의 지자체 간 호환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며 접근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난다. 태그리스가 지자체별로 상이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제조사별 결제 인식 방식이 달라 승·하차 시 이용 편의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서울시 지하철과 경기도 지하철의 태그리스 제조사가 다르다면 사용하는 결제 앱도 달라진다"며 "제조사가 다르다면 결제 과정이 상이해 표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태그리스 시스템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위치 기반 블루투스 기술의 정밀도와 안정성이 향상되면서 교통 결제를 넘어 실내 위치 추적, 스마트 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접촉·자동화 기반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현정(티머니 태그리스 솔루션팀) 매니저는 "향후 기술 개발로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일상에서도 차량 스마트 키, 건물 출입 통제, 경기장 등 대인원 출입 통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운 기자 purple.pea06@gmail.com
이예준 기자 1030jay@naver.com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2026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내일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
노력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한성대 대학원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찬 도약을 함께합니다.

일반대학원(주간)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경영관리
			사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 관광경영, 의식경영
			문화콘텐츠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매케팅, 글로벌경영
		사회계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상담	
			행정학과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정책, 사회안전관리	
			무역학과		뷰티예술학과	메이크업디자인, 헤어디자인, 뷰티에스테틱	
	공학계	경제·부동산학과	뷰티산업융합학과	화장품산업			
		국제이주협력학과	글로벌뷰티학과*	글로벌뷰티메이커(인턴)·국제인문학, 베트남어-한국어			
		신산업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국제인문학, 국방학계, 국방학신			
	석사	에·체능계	신산업경영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메니지먼트컨설팅, 세션비즈니스컨설팅, ESG경영컨설팅		
			정보컴퓨터공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베트남어-한국어)		
			기계시스템공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학과간 협동과정		미디어디자인학과	융합예술학과	창업·프랜차이즈컨설팅			
		융합예술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창업·프랜차이즈컨설팅			
		융합보안학과	융합보안학과	부동산도시개발, 관리전공, 스마트부동산, 프랜차이즈전공			
특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석사	사회계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사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문화콘텐츠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사회계	경영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행정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무역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공학계	경제·부동산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국제이주협력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신산업경영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경영컨설팅(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영어트랙)			

*모집인원은 각 학과(전공) ○영/○○영
*비모집학과(전공) 발생에 따라 모집 학과(전공)는 변경될 수 있음. 최종 모집 학과(전공)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확인 요망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영문)외, (별도의 외국인유학생전담학과 모집요강 참조)

중소기업 계약학과(야간): 계약학과전형(정원외) |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학과간 협동과정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 스마트융합제품, 스마트메트로컨설팅, ESG융합컨설팅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 스마트융합보안컨설팅, 스마트융합기술컨설팅, 스마트메트로컨설팅, ESG융합컨설팅

*계약학과전형 지원자는 [대학원홈페이지-입학안내-입학공고]에 게시된 별도의 모집요강을 통해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요망

원서접수 및 발표 |

- 원서접수기간: 2026. 4. 15(수) 10:00 ~ 4. 21(화) 24:00
2026. 4. 24(금) 00:00 ~ 4. 27(월) 17:00
* 4. 22(수) ~ 4. 23(목), 총 2일간 유웨이어플라이 데이터센터 이전에 따라 원서접수 불가
- 접수방법: [대학원홈페이지 - 입학안내 - 모집요강]에서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를 통해 인터넷접수
- 접견과사: 2026. 5. 16(토) 10:00 * 학과(전공) 지원인원에 따라 면접과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2026. 6. 2(화)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상관 1002호)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허울로 덧칠된 공허한 약속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청년 공약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반복된 현안 중심의 재탕 공약, 핵심이 비어 있는 '결함기식 공약'에 그치는 행보가 이어진다. 청년의 위기를 진단하는 예리함은 사라지고 그저 '좋은 말 모음집'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현재까지 공개된 주요 정당의 공약은 이러한 인상을 더욱 굳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을 겨냥해 결혼 시 비용을 지원하는 '결혼 인센티브' 제도와 전기차 충전 요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역시 '내 집 마련에 자유'라는 슬로건 아래 반값 전세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놓았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재포장하거나 일부 범위를 덧붙인 수준에 불과하다. 결혼 지원과 전·월세 부담 완화 정책은 지자체에서 '결혼장려금'과 세제 혜택 형태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 월세 지원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온 '청년월세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전기차 관련 공약 또한 올해 기후환경 에너지부에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마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양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인다.

청년을 겨냥한 표심용 일회성 공약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4년

주기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는 데 힘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는 공약 남발을 견제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은 허술하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시하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재원 조달 방안과 세부 이행 계획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실제로는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 재원 활용'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후에 계획을 보완하겠다는 주먹구구식 설계가 반복된다.

청년들의 고난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청년을 향한 정책이 결국 '돈을 쥐어주는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당장의 지원으로 문제를 덮는 데 그칠 뿐,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정책 나열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왜 지금 이 공약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공약은 말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문제를 정확히 겨누고 실행의 방안까지 설계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공약의 홍수 속에서도 취업, 주거 등의 고민 속에 청년의 삶은 여전히 메말라 있다. 그 안에서 공허한 정치인의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단비처럼 스며들여, 청년의 일상이 비로소 꽃피는 그날을 기다린다.

이승희 편집국장



제주4·3 제78주년 추모제가 지난 3일 열린순천 녹지광장에서 진행됐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원혼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입법은 이뤄졌으나, 이들에 대한 왜곡과 낙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 앞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정부는 조속한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오랜 침묵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고 이들의 존엄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기자수첩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선언이 무색해졌다. 지난 31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대비 16명(2.7%)이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보다 22명(14.5%)이나 늘어난 17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질적으로 법률과 정책 대상에서 '예외'로 취급됐다. 안전·보건 관련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 수칙과 예방, 처벌 등을 규정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된다. 안전 취약 영역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다.

안전의 봄을 그리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 속 이들을 위한 명확한 지원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정부가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컨설팅은 일회적으로 진행되며, 대기업의 사례를 소규모 사업장에 맞춰 컨설팅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혹자는 산업재해를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 등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사람은 본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실수는 어쩌면 당연하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중대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일터가 돼서는 안 되기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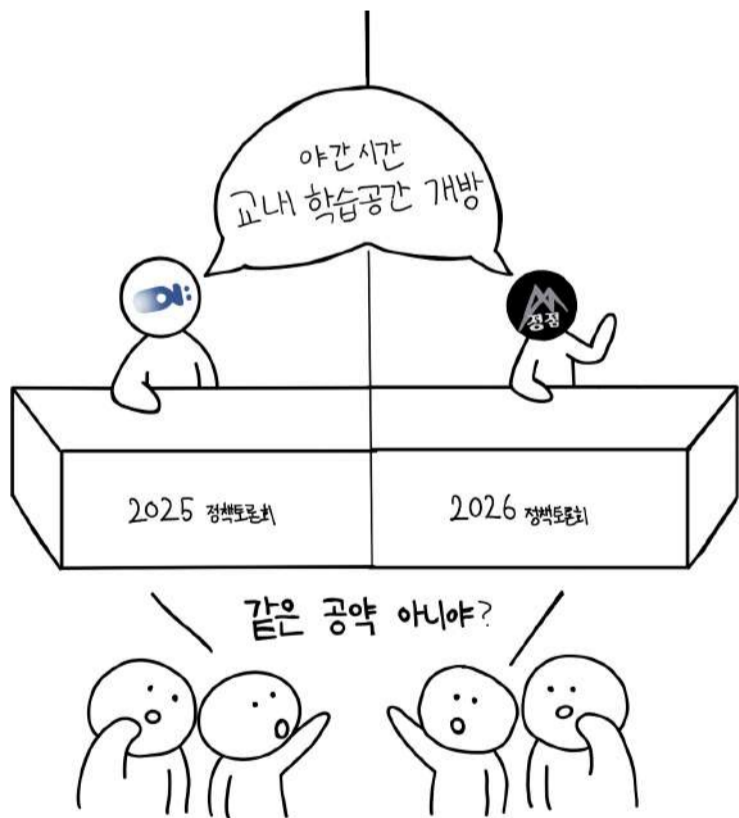
정부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최소 기준'이 마련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지역 단위의 전문가에게 즉시 도우미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가 젊어지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노동자의 안전이 비용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다.

송사무엘 기자 songsamuel24@naver.com

낙산만평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 낙산에 올라

새학기가 시작되며 멈춰있던 대학생의 시계가 돌아간다. 시계가 돌아간다는 것은 각자의 앞에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새학과 학년이 오르면서 나에게도 진로라는 한가지 고민이 늘었다. 내가 배우겠다고 선택한 것들이 막상 나에게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중간에 나의 길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 그런 순간들이 늘수록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라는 막연한 고민들이 나를 짓누른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듣기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좋아하는 것은 쉽게 찾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일은 구체적인 계획과 열

쓸모없는 것들의 반란

정이 없으면 힘들다. 정말로 우리는 하루 빨리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고민해야 할까? 이에 대한 나의 답은 '아니오'였다. 그래서 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다.

요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 고민들을 실천하기 위한 에너지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등교를 할 때나 학교 이후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가 쉽고 기분 좋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있다. 예를 들면 시 읽기, 필사하기,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웃으며 인사하기 등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행동을 보고 '미래에 전혀 도움 안되는 일'이라며 치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결국 이 행위들이 나의 가치관을 고유하게 정립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성을 결정짓는 선명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로 고민을 뒤로 미루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부단히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그 자체로 미래를 지탱해 줄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요즘 여러분의 하루 속 사소한 힐링은 무엇인가? 남과 다른 나만의 일과에서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가? 만약 자신만의 에너지를 얻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에 감사해보자.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지녀보길 권한다. 정성껏 남긴 기록들은 훗날 방향하는 내가 돌아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 줄 것이다. 서준영(연문 2)

■ 의화정

AI와 반도체 패권, 융합보안이 핵심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이 거세다. 최근 글로벌 시장을 뒤흔드는 반도체 전쟁과 생성형 AI의 폭발적 성장은 기술이 더 이상 공학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이제 AI는 단순한 답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대신 결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 '디지털 동료'의 등장은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보안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의 보안이 외부 침입을 막는 '성벽'을 쌓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성을 가진 AI 에이전트의 행동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대다. 특히 AI 에이전트의 두뇌라 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의 설계 도면이 유출되거나, 제조 공정 데이터가 조작된다면 그 피해는 한 기업을 넘어 국가 안

보 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술·물리·관리를 아우르는 '융합보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필자가 현장에서 보안 체계를 점검하며 절감한 점 역시, 첨단 기술의 완성은 결국 이를 안전하게 지탱하는 '신뢰의 거버넌스'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본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하다. 여러분이 전공하는 지식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하라는 점이다. 브레이크가 강력할수록 자동차가 마음 놓고 속력을 낼 수 있듯, 탄탄한 융합보안 역량은 AI 에이전트와 반도체 기술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동력이 된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기술적 에리함뿐만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내가 다루는 코드 한 줄, 설계하는 보안 정책 하나가 국가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책임감 있는 인재'가 돼야 한다. 기술은 매 순간 변화하지만, 사람과 기술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보안의 기본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교의 인재들이 AI 에이전트가 이끄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술을 넘어 신뢰를 설계하는 리더로 성장할길 기대한다. 여러분의 정직한 탐방술이 모여 더욱 안전하고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여정에 필자 또한 든든한 조력자이자 선배로서 함께할 것이다.

윤재석(융합보안학과) 교수

기자사령

수습기자 정지우(미래모빌리티 1)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제20회 사진공모전

프레임을 수놓는 당신만의 시선

모집 기간 | 3월 16일(월) ~ 4월 24일(금)
문의 | 02)760-4186



공지사항 바로가기

한성대신문